

김병기, 동작구의원에 1000~2000만원 받았다 돌려준 의혹

이수진 전 의원 “공천 현금·탄원서 전달 녹취 파일 있다” 주장
이 “감찰 무마되고 당사자들 컷오프”…전 보좌진 증거·진술 불입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현금’을 건넸다는 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당대표실에 전달된 정황을 보여주는 녹음파일이 있다고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이 5일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언론과 통화에서 전 동작구의원들의 탄원서를 받은 자신의 보좌관이 당대표실 보좌관이던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통화한 녹취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녹취 파일에는 김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좌관이)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해 알고 있다”며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취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1000만~2000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탄원서를 전달했으나 조치는 흐지부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보좌관에게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전달하라 하니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내겠다고 했다”며 “확인해봤더니 당 윤리감찰단은 탄원서 자체를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렇게 감찰이 무마되고 당사자들은 컷오프(공천제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와 관련,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동작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김 의원이 탄원서를 가로채 보좌진에게 보관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좌진들은 김 의원이 지난 정부 시절 ‘친윤 핵심’으로 평가받았던 경찰 고위간부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아내에 대한 경찰의 입간 전 조사(내사) 무마를 청탁하고, 보좌진을 동원해 동작경찰서의 수사 자료를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지난해 11월 9일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진술했으나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서에는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전 동작구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동작구의원의 법인 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있으나, 정치자금은 내사도

시작되지 않았고 법인카드 사건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내사 종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술서에는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이 동작경찰서에 ‘자인이 있다’며 사건 해결을 도왔다 내용도 담겼다. 특히 김 의원 배우자에 대한 내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5월 20일 김 의원이 방배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경찰 수사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경찰은 김 의원 아내 이씨가 2022년 7~9월 한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내사 중이었다. 경찰은 작년 4~8월 내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내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사건 당시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공천현금 의혹을 불입건하는 등 ‘봉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탄원서 내용 대부분이 김 의원 차남과 관련된 것이라 (차남 송실대 편입·넷 챔 채용 개입 의혹 등) 기본 사건에 집중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 13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당초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영등포경찰서, 동작경찰서, 서초경찰서로 나뉘어 있던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로 모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천현금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을 제외하고도 ▲대한항공 속박권 수수의전 요구 ▲국정감사 앞 쿠팡 대표 오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자남 송실대 편입·넷 챔 채용 개입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불법 입수 ▲강선우 의원 금품수수 묵인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 가족도 고발됐다. 김 의원 아내 이모씨는 동작구의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장남은 국정원 업무에 김 의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선우 전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을 고발한 정의당 이상숙 강서구의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부정·의혹, 대표 직권으로 징계”

윤리감찰단 설치 공천 모니터링

발족해 단장으로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 산하에 설치된다. 시·도당별로 비공개 요원을 선발해 지선 공천과 관련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맡는다.

정 대표는 “단원은 시도당별로 비공개 요원을

선발해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전 과정을 모니터하게 될 것”이라며 “공천 신문과 제도와 같이 연동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거 때 최악의 결정은 아무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암행어사단과 공천 신문과 제도를 통해서 접수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전광석화와 같은 신속성과 무관용 원칙으로, 윤리심판원의 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당 대표 직권으로 비상 징계를 즉시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혜훈, 재산 175억7천만원 신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2020년엔 62억9천여만원 신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재산 175억6952만원을 신고했다.

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지분 100분의 35(12억9800여만원), 세종시 아파트 전세 임차권(1억7330만원), 서울 중구 오피스텔 전세 임차권(1000만원), 예금 4758만원, 증권 14억4593만원 등 총 27억2966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의 나머

지 지분 100분의 65(24억1120여만원), 포르쉐 등 차량 3대(총 9879만원), 예금 4억6165여만원, 증권 71억7384여만원 등 총 101억4549여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 장남은 1억400만원 상당의 서울 마포구 상가 지분 절반, 서울 용산구 아파트 전세 임차권 지분 절반(3억6500만원), 증권 1억8384여만원 등 총 17억124여만원을 신고했다.

차남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 나머지 지분 절반(1억400만원), 서울 중랑구 아파트 전세 임차권

(1억2000만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주택(2억2000만원), 예금 1억4826여만원, 증권 11억1843여만원 등 총 17억1419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삼남은 예금 2160여만원, 증권 12억5731여만원 등 총 12억7891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20년 국회 공보에 공개된

퇴직의원 재산공개에서 62억9116여만원의 재산

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년 만에 약 113억원의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1964년생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팀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